

## 김재규(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sup>1)</sup>) 1차 구술

1. 구술자: 김재규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5월 19일
5. 구술장소: 부산 동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시민교육원
6. 구술분량: 04분 20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민주화운동 시기 노무현 변호사의 개인적 면모

구술자 : 예를 들어 부민협<sup>2)</sup>이라든가 기타 논의가 있어서 밤을 새는 경우가 그때는 많았습니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밤샘 토론을 하게 된다던가 그런 경우는 같이 밤을 새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비밀비재 했었습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집에 못 들어가는 게 그냥 태반이었으니까요.

면담자 : 그럼 아무래도 공식석상에서도 그렇고 사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전보다 자주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자주 뵈게 되고 했을 것 같은데, 공·사적 자리에서 혹시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셨다거나, 그런 기회가 종종 있어왔을까요?

구술자 : 예,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술도 같이 한잔씩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저하고는, 저보다 두 살이나 많지 않습니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객지 친구는 오(5)년까지 관찮다’ 면서(웃음) 친구처럼 편하게 이렇게 대해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야 또 저희 변호사고, 변론인이었으니까 함부로 못하지요. 거기다가 우리는 이렇게 참 누구보다 편할 수 있고 정말 그야말로 귀족적, 풍요로운 조건 속에 살 수 있는 분이 그걸 박차고 이렇게 권력과 맞서서 힘든 길을 같이 가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또 앞장서서 이렇게 싸워주시고 그러니까, 참 남달리 더욱더 항상 참 어려운 분으로 이렇게 비치고 그래서 항상 이래 서로 상호 존중하고

---

1) 2011년 5월 구술 당시 현직

2) 부산민주시민협회의 약칭. 부산민주시민협회는 부산지역에서 민주화 투쟁에 동참하던 민주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1985년 5월 3일 창립한 민주단체로 부산지역 재야민주세력을 총괄한 공개기구이자 운동의 중심체였다. 1986년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회장 송기인 신부, 부회장 최성목 목사를 비롯해 상임위원과 통일, 노동, 인권 등 8개 전문 분과를 두었는데 노동문제분과를 노무현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사무국장은 김재규, 실무는 이호철, 이성조, 윤연희가 맡았다.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3>, 1998, 476~477쪽 참고

마음으로부터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계로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면담자 :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라고 부르셨나요? 당시에.

구술자 : 사적인 자리에서는 저는 ‘노 변호사님’ 이렇게 하고 우리 노 대통령은 ‘김형, 김형’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 살은 별로 구애를 안 받고 하시는 편이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또 대해주었습니다.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그런 편이었지요.

면담자 : 술도 잘 드셨나요?

구술자 : 술도 그런대로 좀 하시는 편이었지요. 영 못하시는 편은 아니었죠.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술을 과하게 하시는 편은 좀 아니었던 거 같아요. 술을 좀 하시는 편이고. 재미나게 노시고. 술 먹으면 춤도 추시고.(웃음) 마, 항상 술자리는 흥겹게 재미나게 이렇게 노시는 편이었고. 그런 게 참 좋았지요. 노래도 하시고 예, 춤도 추시고. 춤이라는 게 뭐 브루스나 무슨 지루박은 할 줄 모르고 그냥 어깨춤입니다, 어깨춤. 우리 같이 있는 사람 즐겁게 하는 그런 춤이죠. 우리가 아직 사교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웃음)

## ■ 구술자 주요이력

1948. 부산 출생

1968. 부산고등학교 졸업

1974. 부산대학교 무역학 학사

1971.10 교련강화·학원병영화 반대투쟁으로 제적

1974.04 유신거부 투쟁·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1981.09 부림사건으로 구속

1984.06 공해문제연구소 이사

1985.05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무국장

1987.05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

1989. 부산민족민주운동연합 부의장

1992. 민주당 부산 금정구지구당 위원장

1994. 민주당 민주개혁정치모임 상임운영위원

1994.04 부산지역정책연구소 소장  
1996. 민주당 부산 금정을지구당 위원장  
1998. - 2010.02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1999. - 2002. 부산민주공원 관장  
2002. 새천년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 부산본부장  
2003.07 - 2006.07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2010.03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2012년 현재)

1981년 부림사건 피해자로 변론을 맡은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처음 만났다. 1983년 12월 출소 이후 1984년 공해문제연구소 이사,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무국장,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으로 ‘노변’과 80년대 부산 민주화운동을 함께했다. 3당 합당 이후인 1992년, 1996년 총선 당시 노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후보로 부산에서 출마해 낙선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부산민주공원 관장 등을 거쳐 2012년 현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